

별이를 도와주세요



다시
생각해보아요!

개구쟁이 별이는 호기심이 많아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!
그런데 어느 날 나쁜 아저씨가 다가와 별이의 몸을 만지고
이상한 곳으로 데려갔어요. 안돼! 친구들 별이를 도와주세요.



"엄마! 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?"
호기심 많은 별이는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.



"별이야~ 아저씨가 놀아줄까?"
나쁜 아저씨가 별이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.



"우체국이 어디 있니?"
나쁜 아저씨가 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.



"꿈쩍 마! 너를 체포한다."
경찰 아저씨의 도움으로 별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.

